

# 대출 막히기 전에 '영끌'... 나홀 만에 4534억, 마통 폭증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2배 ↑  
증시 활황에 빚투 수요 몰려  
투자자 예약금 3.7조 증가  
대출규제 우려에 영끌 분주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을 넘는 등 고공행진하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빚투) 수요와 혹시 모를 신용대출 규제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해두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 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들어 7일, 영업일로는 불과 4일 만에 453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신용대출 증가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한 몫했다.

통상 신규 개설되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된다. 마



이너스통장 개설건수는 지난 7일 기준 1960건으로 지난해 말(1048건) 대비 912건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주식 투자자금 수요와 억눌렸던 대출수요가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0.50포인트(P) 오른 3152.18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예약금도 늘고 있다. 7일 기준 투자자 예약금은 69조

271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조7492억원 증가했다. 투자자 예약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아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통상 증시 대기자금이다. 코스피가 고공행진하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개인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은행권이 연말에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 대출수요도 급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

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2000만원 이상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신한은행도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우리은행은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월 신용대출 증가액 한도 2조

원 중 23%를 소진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민간부분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와 금융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강화가 핵심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권 관계자 "최근 주식투자 수요가 늘고, 올 초 은행권의 신용대출 조이기 관련 조치들이 다소 풀리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만간 은행주 배당주 정책도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급격히 신용대출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잠자는 퇴직연금 깨운다... '직접투자'로 수익률 UP

국내 퇴직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함에 따라 기존 부동산 등에 몰리던 투자자금이 증시로 옮겨오는 '머니 무브(money move)'가 가속화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규모 200조 돌파  
5년간 수익률 3% 밀돌아  
2% 넘긴 은행 1개사 불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이 있다. 이중 DB형은 근로자가 받는 연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자가 운용 이득이나 손실을 안는 구조다. 반면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된다.

◆수익률, 증권사 맑음 銀·보험 '흐림'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휴먼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2020년 3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적립금 규모 2000억원 이상 36개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은행·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수익률 업종별 분석에서 미래에셋대우가 3.40%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분석은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2020년 3분기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종합수익률 현황〉

순위	회사명	적립금	종합수익률
1	미래에셋대우	115,138억원	3.4%
2	삼성증권	51,086억원	2.89%
3	한국투자증권	61,841억원	2.78%
4	하나금융투자	4,983억원	2.74%
5	대신증권	9,689억원	2.71%
6	신한금융투자	29,628억원	2.62%
7	NH투자증권	33,186억원	2.52%
8	KB증권	21,520억원	2.49%
9	미래에셋생명	44,520억원	2.43%
10	교보생명	74,048억원	2.39%
11	신한생명	6,375억원	2.2%
12	IBK연금보험	9,423억원	2.19%
13	롯데손해보험	25,788억원	2.16%
14	신한은행	234,151억원	2.14%
15	현대차증권	125,295억원	2.12%
16	삼성생명	295,322억원	2.06%
17	흥국생명	9,611억원	2.06%
18	KB손보	27,127억원	2.01%
19	한화생명	41,428억원	1.99%
20	푸른현대생명	11,901억원	1.98%

/한국퇴직연금개발원·휴먼경제연구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성과와 이를 종합한 수익률(제도유형별 적립금 가중평균 환산 수익률)로 산출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종별 평가 순위가 발표된 것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수익률 상위 10개사 중에는 증권사가 8개사, 생명보험사가 2개사, 은행 0개사로 나타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증권사가 1위부터 8위까지 차지해 수익률 면에서 생명보험사와 은행을 앞질렀다. 반면 36개사 중 하위 10개사는 모두 은행이 차지했다.

종합수익률 상위 10개사는 ▲1위 미래에셋대우(적립금 11조5100억원) 3.40% ▲2위 삼성증권(적립금 5조 1080억원) 2.89% ▲3위 한국투자증권(적립금 6조 1840억원) 2.78% ▲4위 하나금융투자(적립금 4980억원) 2.74% ▲5위 대신증권(적립금 9680억

원) 2.71% ▲6위 신한금융투자(적립금 2조9620억원) 2.62% ▲7위 NH투자증권(적립금 3조3180억원) 2.52% ▲8위 KB증권(적립금 2조1520억원) 2.49% ▲9위 미래에셋생명(적립금 4조 4520억원) 2.43% ▲10위 교보생명(적립금 7조4040억원) 2.39% 순이었다.

저금리, 부동산 규제에 '머니무브' 주식투자중 직접투자 520% 증가  
신한금투 퇴직연금 내 ETF 3배 ↑

종합수익률 2%를 넘긴 상위 18개사로 확대해 살펴봐도 증권사는 9개사, 생명보험사 8개사, 은행 1개사로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적립금 6370억원)만이 종합수익률 2.14%로 간신히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퇴직연금도 '머니 무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9년 처

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9월 말 기준 226조원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5년간 수익률은 3%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저금리 환경에서 안전 자산에 편중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에 정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증시로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면서 퇴직연금 투자 방식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중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은 집합투자증권(펀드)과 직접투자를 합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이 2016년 대비 2019년에 46.5% 증가한데 반해, 집합투자증권과 직접투자는 각각 124%, 520% 올랐다.

실제 퇴직연금 운용 방법 중 직접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의 퇴직연금 내 ETF 투자금액의 경우 2019년 말 약 200억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600억원 수준으로 3배 늘었다. 이에 비춰 볼 때 현재는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국 퇴직연금 401k 가입자의 주식투자 비중이 50% 이상(2017년)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퇴직연금 중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 IRP형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인 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퇴직연금 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염재민 기자 yji208@

##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금융당국, 감독지침 마련

코로나19 관련 상황 반영

금융당국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 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 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의 추정 불확실성이 존재해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 기업은 보유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이 경우 기업은 회수가능액 작성 시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특히 2020 재무제표 작성 시 코로나19 종식시점과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의견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추정 공시한 경우 회계요류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우선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신의 추정치가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요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는데도 코로나19로 시장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한 경우에 대비해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사유리 기자